

이슬성신의 귀한 은혜는 간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 마음속에 다져져야

이 길은 마음먹는 대로 된다고 그랬죠? 마음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하면 될까요? 마음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하면 되질 않아요. 마음을 한 번 먹었으면 꾸준히 변치 않고 그 마음을 품어야 이루어지는 거지, 마음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하면 결과적으로 죽도 밥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죠?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없으면 성공을 하지 못해요. 뱀뱀이 소갈머리 마냥 만날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죽도 밥도 안 되고 결국은 실패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고로 한 번 뜻을 품으면 끝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참고 견디는 인내력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는 인내력을 가져야 기어이 영생을 쟁취하는 것이지 참고 견디는 인내력 없이 번덕을 부리면 매일 영점으로 떨어져서 출발하기에 바빠요. 그렇게 시작만 하다가 볼 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인내력이 있어야 무엇인가 결과를 이루어야 하는 거지,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없으면 이 세상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죽지 않는 영생의 일이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되어 질까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번덕을 부리면 피가 썩어서 그 썩은 피가 매일 축적이 되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하는 사람은 결국 죽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번치 않고 시간 시간이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 마음속에 다져져야 그 피가 영생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관에서는 그 피가 이루어져야 구

원을 얻는다고 영모님이 옛날에 말씀했는데 그것이 진리의 말이예요. 그 피가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져야 구원이이지, 사람의 피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시간 시간이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귀중하게 여길까, 우습게 여길까? 영생이 귀한 고로 율화통이 터져서 화가 나도 영생을 빼앗길까봐 화낼 수 있어요? 영생이 귀한 고로 화 못 내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진주를 주게 되어 있는 거지,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도야지와 같은 사람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도 쓰여 있는 거죠? 그 진주라는 건 귀한 것을 말한 거죠? 그런고로 생명의 귀한 은혜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던져주는 거지, 이 사람이 이슬성신을 부여할 때에 그냥 아무에게나 다 부여하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은 이슬성신을 받는데 뒤에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 그 마음을 보고 주는 거예요. 영생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인생에게 주 봐야 금세 쏟아져버려. 금세 죄를 짓고 금세 번덕부리고 금세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 귀한 은혜를 쏟아버리는 고로 안 줘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깎쟁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왜 깎쟁이나 하면 정확하다는 얘기에요. 깎쟁이라는 말이 나쁘게 표현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쁜 말로 여기는데, 깎쟁이라는 건 정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귀한 은혜를 쥐 가지고 간직할 수 있는 지, 간직할 수 없는지, 이걸 알고 그 은혜를 주는 거지, 그



구세주 조희성님

냥 주는 게 아니예요. 구세주라는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니, 영성한 사람이 아니예요.

이 사람이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을 보면 알봐요. 왜 그러나하면 전략상 그 본심을 캐내려면 이 사람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 자기 본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 본심을 캐내려면 어수룩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 금세 번덕부리고 금세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 귀한 은혜를 쏟아버리는 고로 안 줘요. 아시겠어요?

지구 땅 속에 있는 불덩어리의 실체

이 사람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한 두 가지만 알고 있는 아니라 많이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지구 땅 가운데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 불덩어리가 바로 하나님

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흙 속에 묻혀있는데 이 불덩어리가 왜 식지 않고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나 터키나 이런 나라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지진이 왜 일어나느냐하면 그 불덩어리가 지반이 약하면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이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막 갈라지고 바닷물이 막 들어가고 해도 땅 속에 있는 불덩어리가 식지 않죠? 물이 얕만 들어가도 안 꺼지는 것은 그 불은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돼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런 불덩어리가 앞으로 이 사람의 얼굴에서 나가. 그런고로 이 불덩어리가 나가기 시작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전깃불도 안 켜지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고로 사람 속에 있는 마귀는 저절로 다 죽고 말아요.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고로 이 승리제단 나와서 은혜를 입고 이긴자 하나님이 되면 왕의 반열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우주를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영원무궁토록 얼굴에서 빛이 나가고 날아다니면서 왕 노릇하게 되어 있는 고로 한 백성으로 영생을 얻어도 영광인데 왕 노릇하면서 영생한다는 게 이게 보통 영광이예요? 보통 영광이 아니죠? 그런 고로 우리들이 반드시 이긴자가 되어야 돼, 실패자가 되어야 돼? 이긴자가 되어야죠? 이긴자가 되려면 이긴자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긴자는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강할까, 약할까? 강하죠? 또 이긴자의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할까, 변함이 없을까? 변함이 없죠? 그리고 한 번 뜻을 품으면 굽히는 일이 있어요? 없죠?

은 우주를 주관하는 왕 중 왕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다 이긴자가 되어서 왕의 반열에 서야죠? 기왕 영생 얻을 바에는 왕이 돼서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좋죠? 조금 있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온 우주를 주관하는 왕중왕이예요. 이 사람이 각 나라의 왕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승리제단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왕의 반열에 세워지고 그날에 큰 영광을 누리게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쾌락을 누리게 되는 고로 그런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달음박질을 해야 함치게 달릴 수 있지, 그런 목적도 희망도 없으면 전도를 해도 맥이 없어 전도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눈에서 불이 나오. 그래서 전도 받는 사람이 눈에 불이 나는 걸 보고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새식구가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사람이예요. 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데 11시에 방송이 있는데 오늘 좀 늦었다면서 나갔어요. 예배보고 가라니까 방송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 다음에 시간 내서 온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현재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이 탈북자들을 순** 교회나 이런 데서 한 달에 오십만원씩 주고 그 교회에 나오게 한 대요. 그러면서 우리 제단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큰 건물들 지어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뭔가 굉장한 것이 있는 것 같데. 있기는 있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탈북자 한 명 명 정도씩만 데려다가 여기서 전도하시는 게 어때냐? 그래요. 그래서 "아, 그걸 좋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사람 데리고 온다면 무조건 다 좋다고 그러죠? 데리고 오는데 젊은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나하면 힘든 일도 해도 젊은 청년들이 하지, 노인네들은 못하죠? 그래서 태권도도 하고 뭐 이런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총재님을 경호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아, 그런 것 필요 없다!" 그랬어요. 초창기에 어떤 청년이 이 사람을 해치려고 철주를 가지고 이 사람 머리를 때린 일이 있는데 자기 머리가 맞은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호 따위는 필요 없고 백명이 담배도 다 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2001년 6월 12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2) 출애굽, 홍해를 건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월(아비월) 십사일에 애담광야를 떠나 옛세 밤낮 동안 시나이반도를 가로질러 누웨바(Nuweiba; 비하히롯)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정월(아비월) 이십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물러고 있던 누웨바 해변은 좌우가 험한 산으로 둘러져 있고 앞은 홍해바다(아카바만)로 가로막혀 있는, 마치 입구가 하나뿐인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던 그들은 누웨바 해변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질겁하고 아췌게 부르짖고 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모세야, 애굽에는 물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

1 홍해바다(아카바만): 히브리 원문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건넌 곳은 '홍해(Red Sea)'가 아니라 '얌-수(yam-suph: 갈대 바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애굽의 시나이반도와 아라비아의 미디안 땅을 경계 짓는 바다의 이름이 갈대의 바다(sea of reeds)이며, 오늘날의 아카바만(Gulf of Aqaba)이다. 실제 아카바만은 소금기가 있는 바다이지만 가파른 계곡에서 담수가 흘러 내려오기에 유일하게 갈대가 자라는 바닷가로 알려져 있다.

내어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이럴 줄 알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애굽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우리가 애굽의 종노릇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구름이 애굽 병정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애굽 병정들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되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장님과 같은 상태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갈라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급히 자신의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쳤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 양쪽으로 벽을 이루고 가운데에 길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다 건너 미디안 쪽으로부터 거센 바람이 일어나더니 밤새도록 바닷길로 지나면서 갯벌 같은 길을 말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에 불기둥이 바다 가운데로 난 길로 전진하자, 이스라

《5장 모세》 (12) 출애굽, 홍해를 건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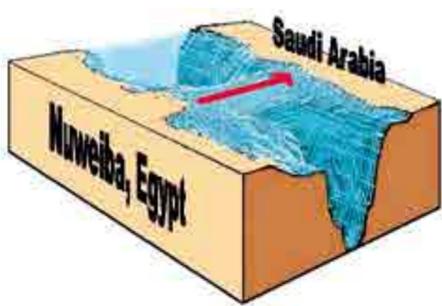
엘 백성들은 불기둥을 따라 마른 땅을 밟고 바삐 걸어갔습니다.

한편 먼동이 트기가 무섭게 애굽의 병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 돌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애굽의 병정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기를 원치 아니하신

고로, 돌풍을 일으켜 병거의 바퀴에 모래와 자갈이 끼이게 하여 그들의 전진을 막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 병사들의 마음까지 주창하시니, 애굽 병사들이 스스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으면 날벼락 같은 일을 맞게 될 것이니 그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25절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마귀신은 독안에서 든 쥐와 같은 신세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신은 애굽 왕 투트도



홍해 횡단 (바닷길: 시나이반도 누웨바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_ 해저지형 단면도

세 3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왕)는 그의 병사들에게 병거의 바퀴를 정비하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습니다.

누웨바에서 미디안 땅까지 바닷길은 동서 너비 약 15킬로미터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중이 대부분이 바닷길을 건너 미디안의 해변(비알제폰: Bael-Zephon)에 올랐습니다. 행령의 후미만 행진 중이었습니다. 병거를 타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에 따라붙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풍을 일으켜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를 방해하였습니다. 날이 환하게 켄 무렵에 뒤쳐져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스로 미디안 해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와 동시에 벽을 이

루고 있던 바닷물이 합쳐지더니, 그 바닷물이 바닷길을 달리던 애굽의 병거와 병사들을 덮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고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비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고(tambourine: 탬버린)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메겼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정작 홍해바다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열두지파 가운데에 단자파 자손의 씨를 보전해야 그 핏줄에서 정자 만민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오게끔 예정되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단자파 족속을 살려야만 되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애굽 사람들의 심령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불행을 자초하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서 볼 때 죽어가는 애굽 사람들의 속의 생명과 양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월 십사일에 시나이반도 동쪽 애담

광야를 떠나 옛세 만에 시나이반도 서쪽 누웨바 해변(Nuweiba; 비하히롯)에 이른 이스라엘 대중은 이제째 되는 정월 이십일에 홍해바다(아카바만)를 건너 미디안 땅(수르광야)에 당도하였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아라비아반도의 미디안 땅에 이른 것입니다.

모세는 시나이반도의 애담광야를 떠나 7일 만에 미디안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내딛던 미디안의 수르광야를 공히 '애담광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애굽의 애담광야에서 출(出)애굽한 날, 첫째 달(1월)인 아비월 14일에 성회요, 미디안 애담광야(수르광야)로 탈(脫)애굽한 날, 아비월 21일에 성회로 삼고,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는 기념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십일(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하며, 이렛날에는 여호와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절(無酵節)을 대대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의 선조들을 구원해주시는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41절 사백삼십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와 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